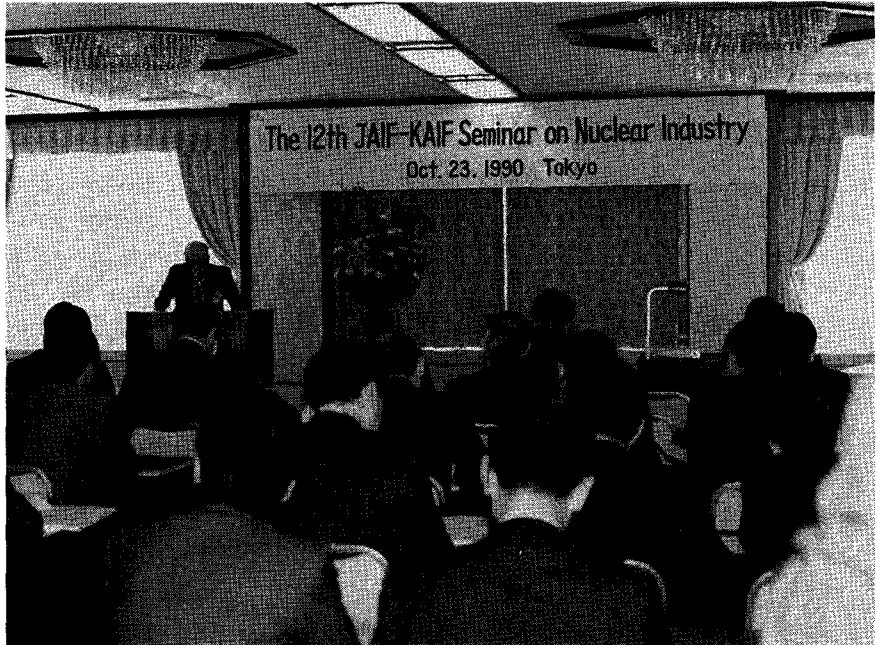


原子力에 대한 國民의 올바른 이해

— 국민홍보에 합의점 마련 —

일본원자력 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산업 회의가 공동주최하는 제12회 한일원자력산업세미나가 지난 10월 23일 일본 동경에서 한일 양국의 학자·기술자 및 관련기관의 관련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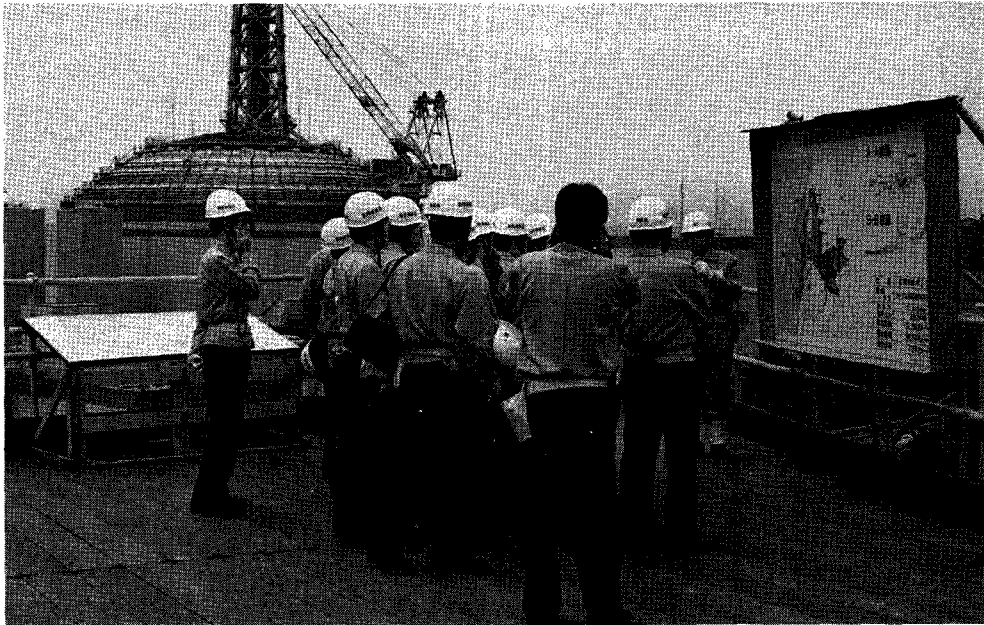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란 기조테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홍보”라는 구체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어느때 보다도 한일 양국 발표자의 열기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번 한일원자력산업세미나에는 22명의 한국 대표단(단장 金善昶)이 참석하였는데, 개회세션에서 일본측(財)産業研究所 稻葉秀三이사장의 개회축사에 이어 일본대표단장인 九州電力(株)

白石晶一부사장과 한국대표단장인 한국원자력 산업회의 김선창부회장의 개회인사가 있었다.

이어 한일간 특별강연으로 한국전력공사 이호림 발전사업단장의 「한국에 있어서의 원자력계 동향과 원자력발전」이란 제목으로 특별강연이 있는 후, 일본측 통산성 자원에너지청 日下一正 원자력산업과 과장의 「장기에너지수급 전망과 원자력정책」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대응전략」



이란 주제 아래 시작된 세션 1에서는 한국측에서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의 최동순 과장과 한국일보 이광영 편집위원,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김찬욱 홍보전문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원자력에 관한 여론 동향과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매체의 역할 및 동향, 반원전 활동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계속된 세션 2에서는 「원자력산업 현장에 있어서의 국민홍보」란 주제로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처 오재식 부장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준극 실장, 서울대학병원 이명철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한국측에서는 국민홍보의 방향,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따른 국민 이해와 함께 원전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할 조사내용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한일 양국간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있었는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일 원자력 관계자간의 원자력홍보 방향과 활동 등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이번 세미나 주제에 따른 상호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세미나를 마친 한국대표단은 10월 24일 미쓰

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원자력산업을 방문하여 현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어 10월 25일에는 쓰루가에 있는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의 FBR Monju 건설현장을 방문, 고보리 데즈오(小堀 哲雄) 부장의 현황설명과 함께 현재 건설중에 있는 Monju 고속증식로 건설현장을 시찰하였다.

한국대표단은 10월 26일 큐우슈우지방에 도착 九州電力(株)의 玄海원자력발전소 3, 4호기(각 1,180MW)의 건설현장을 시찰하였는데 큐우슈우지방에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4기(玄海 1, 2호기, 川内 1, 2호기)가 가동중이며, 2기(玄海 3, 4호기)가 건설중에 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玄海 3,4호기는 1994년과 1997년에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개최된 이번 제12회 한일원자력세미나는 양국이 갖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과 홍보활동 및 방향에 관해 상호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에 이어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 및 운전상황을 시찰하는 등 한일 양국간의 원자력에 관한 교류의 채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